

# 공유주거의 고급화와 차별화: 직장인 청년 1인 가구의 셰어하우스 수요 특성 탐색\*

Emergence of Luxury and Differentiated Shared Housing: Exploring  
the Demand Characteristics of Shared Houses for Working Young-Adult  
Single-Person Households in Korea

김정기\*\* · 구한민\*\*\* · 김갑성\*\*\*\*

Kim, Jungki · Gu, Hanmin · Kim, Kabsung

## Abstract

While initially noted for its economic benefits, shared housing has been garnering increasing scholarly interest in Korea since the 2010s, primarily due to changes in social and cultural values and paradigms. Despite these changes, however, many researchers continue to focus on economic benefits when analyzing demand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is crucial to re-examine the research focus. Additionally, given the emergence of luxury and differentiated shared housing,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are likely to be financially stable, employed young adults. This paper surveys working young and single adults to identify the demand characteristics of “shared houses”, a popular type of shared housing in Korea. Our findings indicate that the demand characteristics vary based on diverse attributes of working young-adult single-person households. These finding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supply of differentiated shared housing that caters to this demographic.

*주 제 어:* 셰어하우스 수요 특성, 직장인 청년 1인 가구, 공유주거, 공유공간, 느슨한 연결

*Keyword:* Demand Characteristics on Shared Houses, Working Young-Adult Single-Person Households, Shared Housing, Sharing Space, Weak Ties

\* 이 논문은 주저자 김정기(2020)의 석사학위 논문 「서울 직장인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셰어하우스 수요 특성 분석」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이 논문의 초고는 2020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바 있음.

\*\*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도시계획전공 석사, (주)알에이디앤아이 대표(주저자: jkkimsy@gmail.com)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공동저자: ghm21@yonsei.ac.kr)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교신저자: kabsung@yonsei.ac.kr)

## I. 서론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지만(통계청, 2021), 가구는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요인에 따른 가구 분화 현상 때문이다(정지운 외, 2014). 2000년 222만 가구(15.5%)였던 1인 가구는 2020년 648만 가구(31.2%)로 늘어나 약 3배가 되었으며, 2050년에는 905만 가구(39.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통계청, 2022). 이 때문에 1인 가구의 주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이현정, 2018; 구한민·김갑성, 2023). 이에 일부 청년은 경제적 이점이 있는 공유주거(shared housing)를 희망한다(한정원·정수진, 2016). 물론 비경제적인 매력도 있다(지은영, 2016; 久保田裕之, 2019). 밀레니얼세대(Millennials), 이른바 M세대의 소비 특성인 “혼자이기를 원하면서도 소통을 원한다.”, “소유보다는 경험과 공유를 중시한다.”라는 점(조운설·조택연, 2019)을 잘 반영하는 주거형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거형태는 셰어하우스(shared houses)<sup>1)</sup>다. 셰어하우스에서는 단순히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정서적 공유가 가능한 커뮤니티를 제공한다(지은영, 2016; 김도연, 2023).

셰어하우스는 최근 공유경제 패러다임의 부상(황춘화, 2020)과 맞물려 고급화,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sup>2)</sup>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패스트파이브의 ‘라이프온투게더(LIFE on 2.GATHER)’, 코오롱의 ‘커먼타운 트리하우스(Commontown Treehouse)’, SK D&D의 ‘테이블(t’able)’ 등 고급형 셰어하우스가 공급된 바 있다. 이들은 뛰어난 입지성과 어메니티(amenities)로 직장인 청년의 관심을 끌었다. 최근에도 홈즈컴퍼니의 ‘홈즈스튜디오(HOMES studio)’, 엠지알브이의 ‘맹그로브(Mangrove)’, KT에스테이트와 야놀자 클라우드 합작사인 트러스테이의 ‘헤이(Heyy)’ 그리고 SK D&D의 ‘에피소드(EPIISODE)’ 등과 같은 고급형 코리빙하우스(co-living house)가 꾸준히 보급되고 있다.<sup>3)</sup>

요컨대 등장 초기에 경제적 이점으로 주목받았던 셰어하우스가 최근 사회문화적 가치와 패러다임의 변화로 말미암아 다시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뉴스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청년과 셰어하우스를 키워드로 함께 포함한 언론 보도가 2014년을 기점으로 급증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그림 1>)<sup>4)</sup>. 셰어하우스를 다룬 연구는 꾸준히 수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시장 변화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시도는 미진하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여전히 셰어하우스의 경제적 이점에만 주목하고 있어 분석의 초점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고급화, 차별화한 셰어하우스의 공급이 확대되는 시장 트렌드를 고려하

1) 한국어 어문 규범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share’ 는 ‘쉐어’ 가 아닌 ‘셰어’ 로 표기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국립국어원의 확인을 받았다.

2) <https://dailian.co.kr/news/view/738521/> 데일리안.

3) <http://m.segyebiz.com/newsView/20210826509394/> 세계비즈.

4)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BIGKinds)에서 검색식 ‘(셰어하우스 OR 쉐어하우스) AND (청년)’ 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2023년의 뉴스 보도량은 6월 기준임에 유의하라.

여 안정적인 경제 상황에 있는 직장인 청년의 수요 특성을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셰어하우스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수요 특성이 어떠한지 탐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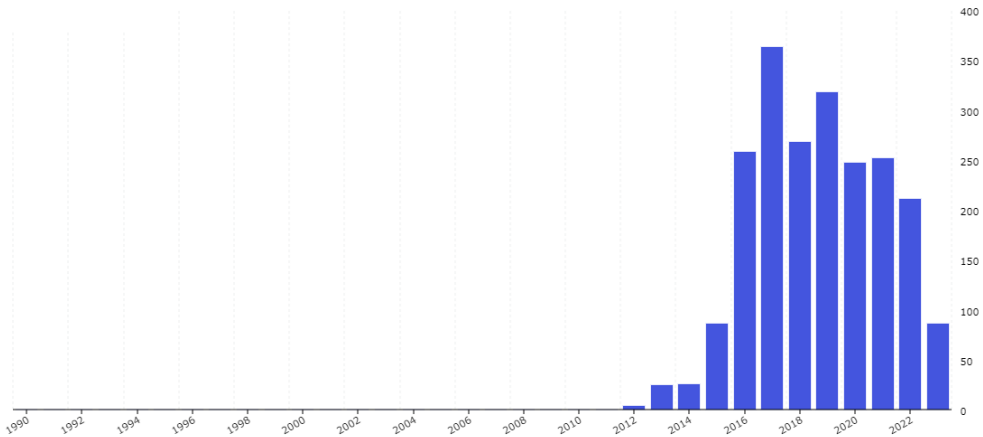


그림 1. 청년과 셰어하우스를 키워드로 포함한 뉴스 보도량(2023년 6월 기준, 단위: 건)  
출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BIGKinds)를 활용하여 직접 분석

## II. 셰어하우스의 개념 및 특징

### 1. 셰어하우스의 개념

셰어하우스는 연구자에 따라 “두 사람 이상이 임대주택에서 임대료, 공과금 등 유지비를 분담하여 거주하는 상황”(Benton, 2014),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취미나 생활양식까지 공유하는 주거유형”(김지환, 2015),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입주자 간 사회적·정서적 공유가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주거”(지은영, 2016) 등 다양하게 정의되어왔다. 이처럼 셰어하우스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학술적 정의는 합일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셰어하우스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므로 그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셰어하우스의 사전적 정의, 즉 “하나의 집에 여러 사람이 거주하며, 침실 같은 개인적 공간은 각자 사용하나, 거실, 욕실 등은 함께 사용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공동주택”에 앞선 학술적 논의를 더하여 개념화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셰어하우스를 “두 사람 이상이 각자 개인적인 공간과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 있는 한 건물에서 생활하며 교류하는 주거형태”로 정의할 수 있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의 주거 공유(久保田裕之, 2019)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코리빙하우스<sup>5)</sup>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표 1>에 따르면 플랫폼셰어(flat share)에 가깝다. 단, 일반적인 관념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혈연 간, 사실혼 관계, 연인 간의 동거는 공간 셰어링(sharing)으로 보지 않는다.

표 1. 공간의 공유에 대한 개념

개념	공유공간	개인공간	전체공간
하우스셰어(house share)	○	○	한 주택
플랫폼셰어(flat share)	○	○	한 구획
룸셰어(room share)	○	×	원룸

출처: 久保田裕之(2019)를 바탕으로 재구성

## 2. 셰어하우스의 특징

### 1) 공간의 공유

셰어하우스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공유공간(sharing space)이다(이의재, 2019). 그간 우리나라에서 공유공간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헬스장, 수영장, 노인정 등 주택 외부의 편의시설을 의미하였다(조주현·김선곤, 2005). 하지만 최근에는 셰어하우스 내에서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가리키는 말로 활용되고 있다. 셰어하우스의 공유공간은 사적 영역의 공유화가 이루어지는 곳, 다시 말해 전용공간의 성격을 갖는 공용공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셰어하우스는 코오퍼러티브하우스(cooperative house), 컬렉티브하우스(collective house)와 일견 유사하다(지예진·신화경, 2017; 久保田裕之, 2019).

### 2) 경제적 이점

공간을 셰어링하는 것이 매력적인 이유는 함께 사는 다른 경제활동자가 경제적 부담을 함께 진다는 점이다(久保田裕之, 2019). 따라서 혼자서 살 때와 같은 비용을 들여 더욱 넓고 쾌적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신은정, 2015; 김하진·유석연, 2019). 주거비를 절약하는 것 이외에도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TV수신료 등 공과금과 관리비를 함께 부담한다는 장점도 있다. 일종의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가능한 주거형태인 것이다. 아울러 함께 사는 사람들과 생활필수품을 나누어 구매하고, 가구, 가전을 공유할 수도 있다.

### 3) 유대감 형성

최근에는 생활을 공유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다는 커뮤니티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久保田裕之, 2019; 김도연, 2023). 지은영(2016), 한정원·정수진(2016) 등에 따르면 외로움 해소, 불안감 완화 등 사회적 요인이 셰어하우스 입주 의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적인 공간을 보장받으

5) <https://www.ajunews.com/view/20230118090641015/> 아주경제.

면서도 필요에 따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셰어하우스가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이는 최근 개인주의에 기반한 공동체적 유대, 즉 이른바 ‘느슨한 연결(weak ties)’을 추구하는 M세대의 특성(구선아·장원호, 2020)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4) 높은 접근성

많은 셰어하우스는 입지성이 뛰어난 곳에 위치한다. 전통적으로 학교, 직장 접근성은 청년들이 주거 선택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이다(박봉규·김호철, 2022). 따라서 셰어하우스 거주자들은 양호한 접근성에 비하여 주거비가 저렴하다는 사실에 만족한다. 최근 셰어하우스 브랜드 우주(WOOZOO)는 강남, 마포 등 업무시설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점포를 늘리는 전략을 활용하여 좋은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다.<sup>6)</sup> 도보든 대중교통이든 양호한 접근성에 대한 선호는 고급화, 차별화하는 코리빙하우스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경험과 공유를 중요시하는 M세대의 특성상(조윤설·조택연, 2019) 오피스뿐만 아니라 편의시설,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 Ⅲ. 선행연구 고찰

#### 1.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문제와 셰어하우스

최근 저출산·고령화, 가구 분화의 가속 등 사회인구학적 변화와 비혼주의, 올로(you only live once, YOLO) 문화의 확대 등 사회변동(social change)으로 청년 1인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청년 1인 가구의 삶에 주목한 연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청년 1인 가구의 삶의 질(정순희·임은정, 2014; 한성민·이숙중, 2018), 사회관계(노혜진, 2018), 정서(이인정, 2021), 식생활(정세호 외, 2021), 의료(임유나 외, 2019), 여가(함연주 외, 2021)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특히 최근 주택가격의 급등과 취업난으로 주거비를 감당하기 힘든 청년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주거 문제에 관심이 커졌다. 이에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문제를 탐구하는 연구(김옥연·문영기, 2009; 정희주·오동훈, 2014; 이무선, 2016; 김대일, 2018; 이현정, 2018; 조하은·김의준, 2018; 최효미·김지현, 2018; 김비오, 2019; 김영주·곽인경, 2020; 윤규리 외, 2022; 구한민·김갑성, 2023)가 다수 수행되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으로서의 셰어하우스에 주목하였다(오정·최정민, 2013; 김지환, 2015; 신은정, 2015; 한정원·정수진, 2016; 유수진·조희선, 2018; 김하진·유석연, 2019; 심미승·박지현, 2019; 황춘화, 2020; 이보람 외, 2021). 따라서 이들 연구는 대체로 셰어하우스의 경제적 이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셰어하우스의 수요 특성과 관련한 대표적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오정·최정민(2013)이 20~30대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셰어하우스에 대한 요구사항과 운영관리

6) <https://www.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18&no=626773/> 매경이코노미.

방안의 선호도를 파악한 결과, 수요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셰어하우스의 수요 특성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면, 여성은 외로움 해소와 안전·보안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하여 남성은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회가 제공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신은정(2015)은 분석적 계층화 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으로 청년 1인 가구의 셰어하우스 입주 의사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 현재 셰어하우스 입주자와 과거 거주 경험자를 대상으로 입주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비경제적 요인, 저해 요인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청년 1인 가구의 셰어하우스 입주 결정에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김하진·유석연(2019)이 셰어하우스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을 식별한 결과, 수요에는 보증금 절약, 월 임대료 절약, 기타 주거비 절약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연구 결과가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셰어하우스의 주요한 수요 특성이 여전히 경제적인 이점에 있다는 사실이다.

## 2. 직장인 청년과 차별화하는 셰어하우스

공유주거의 주 수요층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청년들이다(久保田裕之, 2019; 김도연, 2023). 그러나 최근 부상하는 고급형 셰어하우스의 타깃은 직장인 청년이다. 이들 셰어하우스는 입주자별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서비스나<sup>8)</sup>, 높은 업무시설 접근성 등으로 차별화하고 있다.<sup>9)</sup> 주로 높은 주거비를 지불할 의사(willingness to pay, WTP)와 능력(ability to pay, ATP)이 있는 사람들이 입주하려 하기 때문이다. 홈즈컴퍼니에 따르면 자사의 고급형 셰어하우스 브랜드 ‘홈즈스튜디오’의 입주자 중 직장인의 비율이 90%에 이른다고 한다.<sup>10)</sup> 이러한 시장 트렌드를 고려하면 직장인 청년의 셰어하우스 수요 특성이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에 초점을 맞춘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고급화, 차별화하는 셰어하우스 시장 트렌드와 관련한 시사점을 찾을 수 없었다. 물론 직장인의 셰어하우스 수요 특성을 살펴본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레로 유수진·조희선(2018)은 직장인 청년의 셰어하우스 거주 경험과 입주 동기에 관한 사례연구(case study)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면접을 통하여 직장인 청년이 셰어하우스에 입주하게 된 동기가 ‘적막한 세상에서 벗어나기’, ‘어울림 속 독립 공간의 갈망’ 등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는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유의추출법(purposive sampling)으로 선정한 소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수행한 질적연구의 결과이므로, 실증적인 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직장인 청년 1인 가구의 셰어하우스 수요 특성을 분석하여 고급형 셰어하우스의 공급 확대에 대한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7) 전체 주거비에서 보증금, 월 임대료 등 직접적인 임대 관련 비용을 제외한 관리비, 수도비, 광열비 등을 의미한다.

8) <https://dailian.co.kr/news/view/738521/> 데일리안.

9)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1809111045354520677/](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1809111045354520677/) 대한경제.

10) <http://m.segyebiz.com/newsView/20210826509394/> 세계비즈.

## IV. 연구방법

### 1. 조사설계

설문조사의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청년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사전적으로 청년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있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데, 이를 구분하는 법적인 나이 기준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을 참고하여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현재 1인 가구이거나 1인 가구가 될 의향이 있는 20세~39세의 직장인 청년이 되었다.

설문조사의 개요는 <표 2>와 같다. 조사지역은 셰어하우스의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시로 한정하였다. 조사는 2020년 5월 19일부터 31일에 걸쳐 이루어졌고,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을 활용하였다. 총 218건의 응답을 회수하였고,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67건을 제외한 151건을 실증분석의 데이터로 구성하였다.

표 2.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현재 1인 가구이거나 1인 가구가 될 의향이 있는 20세~39세의 직장인 청년
조사지역	서울시
조사기간	2020.05.19.~2020.05.31.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 활용
조사규모	218명
유효표본	151명

### 2. 변수설정 및 측정

변수는 김지환(2015), 신은정(2015), 한정원·정수진(2016), 김하진·유석연(2019) 등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설정하였다. 직장인 청년 1인 가구의 셰어하우스 수요 특성을 탐색하는 초기적 시도인 만큼 가능한 한 많은 변수를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를 모두 포함하였고, 연구자들의 관심에 따라 ‘주거비 절약에 따른 저축 증대’, ‘주거비 절약에 따른 여가활동비 증가’ 등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성별은 남과 여, 연령대는 20대와 30대 그리고 소득수준은 연소득 5천만 원 미만과 이상으로 집단을 나누었다. 소득수준의 구분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셰어하우스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 요건이 연소득이 5천만 원이라는 점에 따른 것이다. 현재 1인 가구 여부는 지금 1인 가구인 집단과 1인 가구가 될 의향이 있는 잠재 1인 가구로

집단을 나누었고, 셰어하우스 인지 여부는 셰어하우스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셰어하우스의 수요 특성은 경제적 요인, 입지적 요인, 사회적 요인, 시설 및 서비스 요인 등이다. 이들 요인의 지수는 각 하위 범주에 해당하는 변수, 즉 측정지표 항목의 값을 산술평균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요인은 12개 항목, 입지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은 각 5개 항목 그리고 시설 및 서비스 요인은 7개 항목의 값을 평균한 것이다. 각 항목은 1=‘전혀 중요하지 않다’; 5=‘매우 중요하다’ 등 5점 만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측정지표 항목 구성과 범주화에 대한 적절성은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으로 검증하였다. 면접은 현재 1인 가구이거나 1인 가구가 될 의향이 있는 20세~39세의 직장인 청년 중 셰어하우스를 알고 있는 5인을 상대로 실시하였다. 이 중 1인은 셰어하우스에 거주한 경험이 있었다.

### 3. 분석방법

실증분석에서는 우선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기술하고 셰어하우스 수요 특성 요인별 측정지표의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수요 특성 요인의 크론바흐의 알파(Cronbach's  $\alpha$ ) 값을 계산하여 측정지표 항목 간 신뢰도, 즉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평가하였다. 이후 독립표본  $t$ -검정으로 성별,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현재 1인 가구 여부별, 셰어하우스 인지 여부에 따른 수요 특성을 비교하였다. 독립표본  $t$ -검정은 두 집단 간 평균 차이의 유무를 검증하는 분석방법으로 탐색적 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Babbie, 2020). 본 연구 역시 직장인 청년 1인 가구의 셰어하우스 수요 특성을 파악하는 초기적 접근이므로 독립표본  $t$ -검정이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 V. 분석 결과

### 1. 응답자 특성의 기술통계량

응답자 특성의 기술통계량은 <표 3>과 같다. 유효표본 151명 중 성별은 남자 79명(52.3%), 여자 72명(47.7%), 연령대는 20대 38명(25.2%), 30대 113명(74.8%), 소득수준은 5천만 원 미만 86명(57.0%), 5천만 원 이상 65명(43.0%), 현재 1인 가구 여부는 현재 1인 가구 97명(64.2%), 잠재 1인 가구 54명(35.8%) 그리고 셰어하우스 인지 여부는 ‘모른다’ 20명(13.2%), ‘안다’ 131명(86.8%)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은 독립표본  $t$ -검정의 독립변수로 활용되므로 이항형으로 코딩하였다.



표 3. 응답자 특성 기술통계량

구분	범주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성별	남	79	52.3	52.3
	여	72	47.7	100.0
연령대	20대	38	25.2	25.2
	30대	113	74.8	100.0
소득수준	5천만 원 미만	86	57.0	57.0
	5천만 원 이상	65	43.0	100.0
현재 1인 가구 여부	현재 1인 가구	97	64.2	64.2
	잠재 1인 가구	54	35.8	100.0
셰어하우스 인지 여부	'모른다'	20	13.2	13.2
	'안다'	131	86.8	100.0

## 2. 셰어하우스 수요 특성의 요인 내 측정지표별 중요도

직장인 청년 1인 가구가 입지적 요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은 교통 접근성( $M=4.52$ )이었고, 편의시설 접근성( $M=4.48$ ), 쾌적한 주변 환경( $M=4.42$ ), 직장 접근성( $M=4.27$ )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로변 접근성( $M=3.19$ ), 문화시설 접근성( $M=3.18$ ) 등은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입지적 요인의 모든 항목은 3점( '보통이다' ) 이상의 값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4).

표 4. 입지적 요인의 측정지표와 중요도

순위	지표 항목	M	SD
1	교통 접근성	4.52	0.82
2	편의시설 접근성	4.48	0.75
3	쾌적한 주변 환경	4.42	0.70
4	직장 접근성	4.27	0.81
5	차량 이용 편의성	3.78	1.15
6	치안시설 접근성	3.72	1.14
7	지역 이미지	3.65	0.95
8	공원 및 산책로 접근성	3.57	1.06
9	여가 활동 지역 접근성	3.51	1.04
10	친구 및 지인과의 접근성	3.37	0.98
11	대로변 접근성	3.19	1.06
12	문화시설 접근성	3.18	1.23

경제적 요인의 지표별 중요도는 월 임대료 절약( $M=4.34$ ), 주거비 절약에 따른 저축 증대( $M=4.14$ ), 주거비 절약에 따른 여가활동비 증가 ( $M=4.14$ ), 보증금 절약( $M=3.91$ ), 기타 주거비 절약( $M=3.89$ )

순으로 나타났다(<표 5>). 주목할 만한 점은 가장 값이 낮은 기타 주거비 절약이 4점(‘중요하다’)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표 5. 경제적 요인의 측정지표와 중요도

순위	지표 항목	M	SD
1	월 임대료 절약	4.34	0.80
2	주거비 절약에 따른 저축 증대	4.14	0.94
3	주거비 절약에 따른 여가활동비 증가	4.14	0.85
4	보증금 절약	3.91	1.03
5	기타 주거비 절약	3.89	0.96

사회적 요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은 입주자 스크리닝(screening;  $M=4.24$ )이었고, 외로움 해소( $M=2.91$ )는 가장 중요도가 낮은 항목으로 드러났다(<표 6>).

표 6. 사회적 요인의 측정지표와 중요도

순위	지표 항목	M	SD
1	입주자 스크리닝	4.24	0.94
2	안전성 향상	3.17	1.18
3	취미 및 정보 교류	3.00	1.15
4	새로운 만남의 기회	2.94	1.21
5	외로움 해소	2.91	1.23

시설 및 서비스 요인에서는 개인공간의 보안( $M=4.73$ )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는 전체 측정지표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이었다. 반면 세탁 서비스( $M=3.77$ ), 다양한 공용공간( $M=3.28$ ), 식사 서비스( $M=3.15$ ) 등은 비교적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표 7. 시설 및 서비스 요인의 측정지표와 중요도

순위	지표 항목	M	SD
1	개인공간의 보안	4.73	0.54
2	빌트인 시설	4.18	0.88
3	청소 서비스	3.93	1.10
4	넓은 공용 면적	3.86	0.99
5	세탁 서비스	3.77	1.10
6	다양한 공용공간	3.28	1.13
7	식사 서비스	3.15	1.31

### 3. 셰어하우스 수요 특성의 요인별 신뢰도 평가

수요 특성의 요인들은 각각 여러 측정지표의 항목을 평균하여 하나의 값으로 집계한 것이므로 각 지수에 대한 신뢰도 분석이 필요하다. 분석에서는 내적 일치도의 평가에 널리 활용하는 크론바흐의 알파(Schutt, 2018)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크론바흐의 알파 값은 각각 입지적 요인 0.73, 경제적 요인 0.76, 사회적 요인 0.74, 시설 및 서비스 요인 0.63으로 나타났다(<표 8>). 이는 대체로 0.7 이상의 값을 요구하는 사회과학의 통상적 기준(Bland and Altman, 1997; Tavakol and Dennick, 2011; Schutt, 2018)에 부합한다. 다만 시설 및 서비스 요인은 여기에 다소 못 미치는 값이 나타났는데, 이는 0.7이라는 기준값이 절대적인 절사점(cut-off point)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Cho, 2020)과 탐색적 성격을 띠는 초기 연구에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Nunnally and Bernstein, 1994) 등을 고려하면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셰어하우스 수요 특성 요인을 측정하는 데 활용한 측정지표 항목들은 대체로 내적 일치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표 8. 셰어하우스 수요 특성의 요인별 크론바흐의 알파 값

수요 특성	측정지표 항목 수	크론바흐의 알파(Cronbach's $\alpha$ ) 값
입지적 요인	12	0.73
경제적 요인	5	0.76
사회적 요인	5	0.74
시설 및 서비스 요인	7	0.63

#### 4. 응답자 특성에 따른 세어하우스 수요 특성 비교

##### 1) 성별에 따른 세어하우스 수요 특성 비교

직장인 청년 1인 가구의 성별에 따른 세어하우스 수요 특성을 비교한 결과(<표 9>), 입지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입지적 요인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t(150)=-3.101, p<.01, d=-0.16$ ). 이는 문화시설 접근성, 치안시설 접근성, 쾌적한 주변 환경, 공원 및 산책로 접근성, 대로변 접근성 등에 대한 인식 차이에 기인한 것이었다. 경제적 요인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하였는데( $t(150)=-2.063, p<.05, d=-0.22$ ), 이는 기타 주거비 절약, 주거비 절약에 따른 여가활동비 증가 등에 대한 뚜렷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다. 사회적 요인과 시설 및 서비스 요인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9. 성별에 따른 세어하우스 수요 특성 차이 분석 결과

수요 특성	성별	N	M	SD	t	p
입지적 요인	남	79	3.71	0.50	-3.101	0.002
	여	72	3.95	0.46		
경제적 요인	남	79	3.98	0.72	-2.063	0.041
	여	72	4.20	0.56		
사회적 요인	남	79	3.02	1.02	0.231	0.817
	여	72	2.98	0.88		
시설 및 서비스 요인	남	79	3.82	0.58	-0.389	0.698
	여	72	3.86	0.58		

##### 2) 연령대에 따른 세어하우스 수요 특성 비교

직장인 청년 1인 가구의 연령대에 따른 세어하우스 수요 특성을 비교한 결과(<표 10>), 통상적인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입지적 요인에서는 20대가 30대보다 문화시설 접근성을 더욱 선호하였으며, 30대는 20대보다 직장 접근성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요인에서는 30대가 20대보다 외로움 해소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0. 연령대에 따른 세어하우스 수요 특성 차이 분석 결과

수요 특성	연령대	N	M	SD	t	p
입지적 요인	20대	38	3.83	0.43	-0.035	0.972
	30대	113	3.83	0.51		
경제적 요인	20대	38	4.09	0.63	0.094	0.925
	30대	113	4.08	0.66		
사회적 요인	20대	38	2.85	0.90	-1.170	0.244
	30대	113	3.06	0.97		
시설 및 서비스 요인	20대	38	3.77	0.58	-0.950	0.344
	30대	113	3.87	0.58		

3) 소득수준에 따른 세어하우스 수요 특성 비교

직장인 청년 1인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세어하우스 수요 특성을 비교한 결과(<표 11>), 통상적인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입지적 요인에서는 연소득이 5천만 원 미만인 집단이 5천만 원 이상인 집단보다 문화시설 접근성과 치안시설 접근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소득수준에 따른 세어하우스 수요 특성 차이 분석 결과

수요 특성	소득수준	N	M	SD	t	p
입지적 요인	5천만 원 미만	86	3.86	0.50	0.814	0.417
	5천만 원 이상	65	3.79	0.48		
경제적 요인	5천만 원 미만	86	4.15	0.57	1.308	0.193
	5천만 원 이상	65	4.00	0.75		
사회적 요인	5천만 원 미만	86	3.01	0.96	0.141	0.888
	5천만 원 이상	65	2.99	0.96		
시설 및 서비스 요인	5천만 원 미만	86	3.81	0.61	-0.773	0.441
	5천만 원 이상	65	3.89	0.53		

4) 현재 1인 가구 여부에 따른 세어하우스 수요 특성 비교

직장인 청년 1인 가구의 현재 1인 가구 여부에 따른 세어하우스 수요 특성을 비교한 결과(<표 12>), 잠재 1인 가구가 현재 1인 가구보다 입지적 요인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t(150)=-2.001$ ,  $p<.05$ ,  $d=-0.16$ ). 이는 편의시설 접근성, 치안시설 접근성, 차량 이용 편의성, 지역 이미지 등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른 것이었다. 이밖에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그리고 시설 및 서비스 요인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사회적 요인에서는 잠재 1인 가구가 현재 1인 가구와 비교하여 안전성 향상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현재 1인 가구 여부에 따른 셰어하우스 수요 특성 차이 분석 결과

수요 특성	현재 1인 가구 여부	<i>N</i>	<i>M</i>	<i>SD</i>	<i>t</i>	<i>p</i>
입지적 요인	현재 1인 가구	97	3.77	0.50	-2.001	0.047
	잠재 1인 가구	54	3.93	0.47		
경제적 요인	현재 1인 가구	97	4.04	0.68	-1.077	0.283
	잠재 1인 가구	54	4.16	0.61		
사회적 요인	현재 1인 가구	97	2.93	0.97	-1.382	0.169
	잠재 1인 가구	54	3.15	0.91		
시설 및 서비스 요인	현재 1인 가구	97	3.81	0.59	-0.924	0.357
	잠재 1인 가구	54	3.90	0.55		

## 5) 셰어하우스 인지 여부에 따른 셰어하우스 수요 특성 비교

직장인 청년 1인 가구의 셰어하우스 인지 여부에 따른 수요 특성을 비교한 결과(<표 13>), 셰어하우스의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경제적 요인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 $t(150)=-1.668, p<.1, d=-0.26$ ). 이는 대부분 경제적 이점인 월 임대료 절약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이밖에 입지적 요인, 사회적 요인, 그리고 시설 및 서비스 요인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13. 셰어하우스 인지 여부에 따른 셰어하우스 수요 특성 차이 분석 결과

수요 특성	셰어하우스 인지 여부	<i>N</i>	<i>M</i>	<i>SD</i>	<i>t</i>	<i>p</i>
입지적 요인	'모른다'	20	3.79	0.48	-0.403	0.688
	'안다'	131	3.83	0.50		
경제적 요인	'모른다'	20	3.86	0.63	-1.668	0.097
	'안다'	131	4.12	0.65		
사회적 요인	'모른다'	20	2.70	0.96	-1.544	0.125
	'안다'	131	3.05	0.95		
시설 및 서비스 요인	'모른다'	20	3.80	0.50	-0.364	0.716
	'안다'	131	3.85	0.59		

## VI. 결론 및 시사점

2000년대 들어 1인 가구의 주거 문제 심화와 공유경제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대안적 주거형태인 셰어하우스가 주목받게 되었다. 그간 셰어하우스는 대학생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형 공유주거라는

인식이 컸으나, 최근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을 타깃으로 한 고급형 세어하우스<sup>11)</sup>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어하우스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수요 특성이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세어하우스 수요 특성 요인별 측정지표의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입지적 요인에서 교통 접근성, 편의시설 접근성, 쾌적한 주변 환경, 직장 접근성이 모두 4점(‘중요하다’)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 청년 1인 가구가 세어하우스의 입지성을 판단할 때, 교통 측면과 아울러 편의시설 접근성, 어메니티 역시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 ‘숲세권’, ‘물세권’ 등 ‘○세권’으로 불리는 다양한 입지성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구한민·김갑성, 2020)과도 무관하지 않다. 다음으로 경제적 요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중요도가 가장 낮은 기타 주거비 절약이 3.89점이었던 것이다. 이는 직장인 역시 세어하우스의 경제적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한편 사회적 요인에서는 입주자 스크리닝, 시설 및 서비스 요인에서는 개인공간의 보안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황춘화(2020)가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의 결과와 함께 살펴보면 흥미롭다. 학생과 직장인 모두 입주자의 구성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직장인은 여기에 더하여 안전도 매우 중시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직장인 청년 1인 가구의 성별에 따른 세어하우스 수요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입지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입지적 요인은 주로 문화시설 접근성, 치안시설 접근성, 쾌적한 주변 환경, 경제적 요인은 주로 기타 주거비 절약, 주거비 절약에 따른 여가활동비 증가에 대한 인식 차이에 기인한 것이었다. 반면 이러한 차이가 사회적 요인과 시설 및 서비스 요인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성별 특화형 세어하우스를 공급할 때, 이러한 체계적인 차이를 반영하여 공간을 구성한다면 입주자의 효용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1인 가구 여부에 따른 세어하우스 수요 특성을 비교한 결과, 잠재 1인 가구가 현재 1인 가구보다 입지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이는 편의시설 접근성, 치안시설 접근성, 차량 이용 편의성 등 어메니티와 교통편의에 대한 차이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원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현재의 주거실태에 대하여 인지적 재구성(cognitive restructuring)을 한 것으로 풀이한다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쉽게 말해, 여러 측면에서 열악한 주거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이들은 세어하우스의 입지에 대한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고급형 세어하우스를 공급할 때는 1인 가구로 거주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타깃층을 세분화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어하우스 인지 여부에 따른 수요 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이미 세어하우스를 알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경제적 요인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제적 동기가 세어하우스 입주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지은영(2016), 한정원·정수진(2016), 久保田裕之(2019) 등의 주장에 근거를 더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선행연구와 달리 직장인을 대상으로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편 이러한 차이는 세어하우스의 특성과 한계점을

11)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1809111045354520677/](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1809111045354520677/) 대한경제.

인식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때 사이에는 입지적, 사회적, 시설 및 서비스 등 기타 요인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직장인 청년에게 셰어하우스를 공급할 때, 이들의 이해도에 따라 입지성, 시설 특성, 서비스 제공 등 주안점을 다르게 두어 홍보하면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최근의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여 직장인 청년 1인 가구의 셰어하우스 수요 특성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고급형 셰어하우스의 공급 확대와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실천적인 기여도 하였다. 다만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세부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하위시장(sub-market)이 존재하는 주택시장의 특성상(구한민·김갑성, 2021) 서울시 내에서도 지역별로 셰어하우스의 수요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함으로써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 인용문헌

- 구선아·장원호, 2020. “느슨한 사회적 연결을 원하는 취향공동체 증가 현상에 관한 연구”, 「인문콘텐츠」, (57): 65-89.
- 구한민·김갑성, 2020. “복수의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접근성과 그 상호작용효과가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 동탄1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연구」, 28(2): 37-69.
- 구한민·김갑성, 2021.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형성과정: 특성요인에 대한 만족도의 매개효과”, 「주택연구」, 29(1): 33-78.
- 구한민·김갑성, 2023. “공공임대주택, 청년 주거의 디딤돌인가?: 임대주택유형이 자가보유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주거만족도의 매개효과”, 「주택연구」, 31(2): 43-71.
- 김대일, 2018. “성·연령별 1인 가구의 확대 양상”, 「경제학연구」, 66(2): 5-43.
- 김도연, 2023.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공유주택 관련 뉴스기사 분석”,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34(1): 159-169.
- 김비오, 2019.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9(3): 408-436.
- 김영주·곽인경, 2020. “청년 1인가구의 주거환경과 우울감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5(4): 241-250.
- 김옥연·문영기, 2009. “1인가구 주거실태 분석: 서울시 1인가구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7(2): 37-53.
- 김정기, 2020. “서울 직장인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셰어하우스 수요특성 분석”,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환, 2015. “서울시 셰어하우스 거주 의향 및 수요특성”,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하진·유석연, 2019. “셰어하우스 수요공급 결정요인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2): 5-20.
- 노혜진, 2018.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보건사회연구」, 38(2): 71-102.
- 박봉규·김호철, 2022.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호도 특성 분석”, 「도시재생」, 8(2): 62-76.
- 신은정, 2015. “서울 청년 1인 가구의 셰어하우스 입주 의사결정 요인”,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미승·박지현, 2019. “청년주거복지 대안으로서의 셰어하우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방행정학보」, 16(1): 31-51.
- 오정·최정민, 2013. “국내 셰어하우스(Share house) 인식 및 수요특성에 관한 연구”, 「2013년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서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유수진·조희선, 2018. “청년 직장인의 셰어하우스 거주 결정 동기와 거주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가족과 문화」, 30(1): 151-179.
- 윤규리·김영철·장희순, 2022.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선택 특성에 관한 연구”, 「부동산경영」, 26: 43-66.
- 이무선, 2016. “다항 로짓모형을 이용한 청년 1인가구의 주거 점유형태 영향요인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6): 469-481.
- 이보람·박이수·서경희, 2021. “청년주거문제의 대안으로서 국내 셰어하우스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56(2): 235-251.
- 이의재, 2019. “공유주택(Share House) 임대료 실증분석을 통한 청년 1인 가구 주거수요특성 연구: 공유공간 가치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정, 2021. “COVID-19 위기상황이 1인 가구 청년의 우울에 미친 영향: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융합학회 논문지」, 12(9): 205-214.

- 이현정, 2018. “청년 1인가구 주거실태”, 「2018 가정학분야 통합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 임유나·조운민·이태진, 2019. “청년층 의료이용 양상: 1인 가구 청년과 동거 가구 청년 간 비교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9(3): 348-379.
- 정세호·이정우·김자미·김유경, 2021.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적용 및 평가”,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33(3): 143-157.
- 정순희·임은정, 2014. “청년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7(4): 1-19.
- 정지운·임병인·김주현, 2014. “가구원수 분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37(2): 71-90.
- 정희주·오동훈, 2014. “청년세대 1·2인 가구의 주택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9(2): 95-113.
- 조운설·조택연, 2019. “밀레니얼 세대의 공간 소비에서 나타난 특징 분석”,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5(1): 413-429.
- 조주현·김선곤, 2005.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격특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0(3): 79-90.
- 조하은·김의준, 2018. “서울시 청년 1인 가구 주거 문제 분석: 주거소비 면적 감소 현상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34(1): 49-59.
- 지예진·신화경, 2017.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대전: LH 토지주택연구원.
- 지은영, 2016.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복지를 위한 셰어하우스 거주 실태와 요구도: 입주자와 잠재 수요자 대학생을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4(6): 589-598.
- 최효미·김지현, 2018. “청년 1인가구 현황 및 청년층의 1인가구에 대한 인식”, 「2018 가정학분야 통합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 통계청, 2021.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대전.
- 통계청, 2022.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 대전.
- 한성민·이숙중, 2018. “청년 1인 가구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효과를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2(1): 60-85.
- 한정원·정수진, 2016. “대학생의 하우스셰어링 의식과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5(1): 142-150.
- 함연주·원영신·김수연, 2021. “청년 1인가구 여가인식탐색: 네트워크기반 의미연결망분석의 적용”,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4(3): 87-101.
- 황춘화, 2020. “셰어하우스의 선호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잠재적 이용자인 대학생,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5): 90-104.
- Babbie, E. R., 2020.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15th Ed.), Boston, MA: Cengage Learning.
- Benton, A. L., 2014. “Creating a Shared Home”,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Bland, J. M. and Altman, D. G., 1997. “Statistics Notes: Cronbach's Alpha”, *Bmj*, 314: 572.
- Cho, E., 2020. “A Comprehensive Review of So-Called Cronbach's Alpha”, *Journal of Product Research*, 38(1): 9-20.
- Nunnally, J. C. and Bernstein, I. H., 1994. *Psychometric Theory* (3rd Ed.), New York, NY: McGraw Hill.
- Schutt, R. K., 2018. *Investigating the Social World: The Process and Practice of Research* (9th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Tavakol, M. and Dennick, R., 2011. "Making Sense of Cronbach's Alpha" ,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 53-55.

久保田裕之, 2019. 他人と暮らす若者たち. 東京, 日本: 集英社.

<http://m.segyebiz.com/newsView/20210826509394/> 세계비즈.

<https://dailian.co.kr/news/view/738521/> 데일리안.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1809111045354520677/](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1809111045354520677/) 대한경제.

<https://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https://www.ajunews.com/view/20230118090641015/> 아주경제.

<https://www.bigkinds.or.kr/>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BIGKinds).

<https://www.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18&no=626773/> 매경이코노미.

<투고 2023.03.05., 1차심사 2023.04.04., 2차심사 2023.05.15., 3차심사 2023.06.12., 게재확정  
2023.08.17.>